

EDUCATION

#대입

#수시

#학생부종합전형

#이원화_전형_톺아보기

POINT
1

학생부종합(과학인재) 신설

학생부종합(과학인재)는 전자전기공학부와 공학 계열에서 선발한다. 성균관대 권영신 입학사정관실장은 “과학 분야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형이다. 학생부종합(계열/학과모집)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서류 100%로 평가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.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 50%, 개인 역량 30%, 잠재 역량 20%를 반영한다는 점도 같다. 하지만 교과 면접 30%를 반영하는 2단계 전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”고 전했다.

POINT
2

학생부종합(과학인재) 교과 면접 시행

학생부종합(과학인재) 면접은 고교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 전 범위, 과학 교과는 지구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출제한다. 약 10분 동안 현장에서 영상 촬영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 권 입학사정관실장은 “과학은 I, II 과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지원자가 따로 학습해야 한다. 상대적으로 과학과 영재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있으나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 고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. 교과 면접이라 정답이 있는 만큼 인적성 면접보단 학생 간 점수 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”고 설명했다.

POINT
3

사범대학 스포츠과학과 의예과 예외적으로 면접 시행

학생부종합(계열/학과모집)에서 사범대학 스포츠과학과 의예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적성 면접 30%를 반영한다. 권 입학사정관실장은 “교과 면접과 달리 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묻는다. 사범대학 면접이라고 해서 교사의 자질만 보진 않는다. 교육 분야 내의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해보면 좋다. 스포츠과학과는 스포츠를 학문으로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본다. 운동 능력보다는 학업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. 의예과는 사범대학 스포츠과학과와 달리 MMI 면접을 보며, 1단계에서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를 뽑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대학별 이원화 전형 톺아보기 ⑩

성균관대

학생부종합 (계열/학과모집) VS 학생부종합 (과학인재)



성균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크게 학생부종합(계열/학과모집)과 학생부종합(과학인재)로 나눠 운영한다. 학생부종합(과학인재)은 올해 신설됐는데, 2단계에서 교과 면접을 30% 반영한다. 성균관대 권영신 입학사정관실장으로부터 두 전형 간의 차이와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들어봤다.

취재 정은아 기자 galax@naeil.com 도움말 권영신 입학사정관실장(성균관대학교)

한 장으로 알아보는

성균관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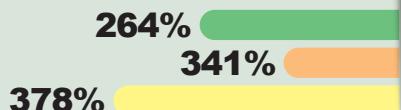
학생부종합(계열/학과모집)

- 1단계 서류 **100%**
- (2단계 서류 **70%+면접 30%**)
- 사범대학/스포츠과학/의예만 해당

사범대학/
스포츠과학

의예

-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5배수 | 3배수 |
| 인적성 | MMI
(다중 미니 면접) |



VS

학생부종합(과학인재)

- 1단계 서류 **100%**
- 2단계 서류 **70%+면접 30%**

면접

1단계 선발

진행 방식

2023학년
입시 결과

7배수

- 제시문 기반 교과형 면접
- 수학: 전 범위
- 과학: <지구과학 I · II> 제외한 전 범위

* 학생부종합(과학인재)은 신설이므로
전년도 공학 계열과 전자전기공학부 통계로 계산함.
* 인문/자연으로 나눈 후 구한 평균값.
* 스포츠과학과 제외.

■ 인문 ■ 자연 ■ 통합 ■ 과학인재

2.05 

12.92:1 

405% 